[Exercise 3] "인간행동예측"

'Dr. Seldon, I judge.'

"그러나 오직 특수만이 주어져 있고, 판단력이 이 특수에 대하여 보편을 찾아내야 할 경우에는, 판단력은 단지 반성적이다." (KU.Einl.XXVI). 철학자 칸트는 그의 저서『판단력 비판』에서 인간의 판단력을 규정적 판단력과 반성적 판단력 두 가지로 규정했다. 판단력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 특수한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이 보편에 포섭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결합하는 지적 능력을 뜻한다. 그 중 규정적 판단력이란 '보편(규칙, 원리, 법칙)이 주어져 있는 경우, 특수를 그 보편에 적용시키는 힘'이고 반성적 판단력은 '특수로부터 보편을 찾는 힘'을 뜻한다. 칸트는 인간의 세계는 결코 완결되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연(Zufall)'적인 대상들을 통일된 법칙 하에서 사유하기 위해선 반성적 판단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스마트폰, SNS등을 통해 사람, 사람들 간의 행동이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데이터로 누적되고 또 그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이 진보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점차 실현되고 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매순간 의식,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들이 우리의 흔적을 모두 데이터화하고 또 그것을 분석함으로써 어떤 사람이 어느 시간에 무슨 행동을 하는지가 예측가능하다는 뜻이다. "Dr. Seldon, I presume"기사에 나와 있듯 특정 예측 알고리즘이 작동하는데 필요한 양의 자료만 축적 된다면, 지금의 기술로도 90%가 넘는 정확도로 인간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예측 결과의 신뢰도는 결코 100%가 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인간행동예측 기술은 복잡한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토대로 인간 행동 데이터를 종합하고 분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수학적 알고리즘의 대상이 고정적인 사물이나 사물간의 물리법칙이 아닌 끊임없이 변하는 '사람'이란 존재이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행동예측이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행동예측기술들이 쓸모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고할만한 '인간 행동의 어떤 경향성'을 얻어낼 수만 있다면, 그 예측은 충분히 제 역할을 한다고 평할 수 있다. 실제로 요즘 화제가 되는 "빅데이터(Big data")의 활용은 이런 예측결과를 의사결정과정에 활용하는 좋은 예다. 카드회사에서 고객들의 지출내역을 분석해 개인에게 맞는 더 적합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명품 브랜드에서 고객들의 소비패턴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고객에게 적합한 신상품을 개발하는 맞춤 마케팅을 하는 등, 데이터를 활용해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이를 수익과 연결하는 작업은 이미 거의 모든 사회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꼭 100%의 신뢰도가 아니어도 보다 나은 삶과 보다 나은 결정에 행동예측의 과학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이런 행동예측은 활용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정교해질 것이다. 인간 행동을 데이터화할 수 있는 전자기기들이 일상생활에서 지금보다 많이 쓰일 것이고, 그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수학적·공학적 알고리즘도 끊임없이 발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덕택에 반성적 판단이 규정적 판단에 도전 가능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인간행동예측의 신뢰도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100%가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예측 기술만을 맹목적으로 믿었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2008년에 갑자기 닥친 세계경제위기가 좋은 예다. 당시 노벨 경제학자 수상자들과 뛰어난 수학자들은 이론상으로는 절대 손해를 입지 않는 복잡한 모기지 펀드 투자 알고리즘을 만들고 실제로 이를 통해 떼돈을 벌었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이 알고리즘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하면서도 끊임없이 부채를 늘려가며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인간의 '탐욕'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속절없이 무너졌다. 그들은 인간이 항상 합리적인 선택만을 한다고 가정하고 알고리즘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 밖의 예외적 상황에 대한 예측은 미처 하지 못한 것이다. 기사에서도 경고한 것처럼, 복잡한 인간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설계된 촘촘한 수학적 알고리즘은 입력 값이 조금만 변해도 전혀 다른 예측 결과를 내놓는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칸트의 말마따나 '완결되지 않고 항상 우연이 개입하는' 존재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력을 배제하고 잘 짜인 알고리즘이 모든 올바른 결정을 내려준다고 믿는 행동은, 역설적으로 미래를 우리의 손이 아니라 운에 맡기는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 과거에는 꿈꾸지 못한 미래예측이라는 미지의 분야를 개척하는 일은 분명 인간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편으로는 수치화되지 않는 개별 상황에 대한 끊임없는 '판단' 해야 온전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